세상을 보는 송호인의 눈

발행인 이기평 | 주간교수 이은경 | 편집장 전민지
주소 25242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남산로 210 송호대학교
이메일 songhonews@songho.ac.kr
홈페이지 www.songho.ac.kr
2017년 6월 16일 금요일 | 16호

# 송호신문 창窓

## 2017 송호체육대회 & 제18회 대동제 개최

지난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우리대학교는 체육대회와 축제인 대동제를 개최하였다. 체육대회는 17일 오후 13시 월계관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풋살, 피구, 단체 줄넘기, 발야구, 계주, 족구, 농구 등 종목별로 경기가 진행됐다.

이번 체육대회는 A팀, B팀, C팀, D팀 총 4개의 팀으로 나누어졌다. A팀(호텔외식조리과, 보건행정과, 뷰티케어과), B팀(관광대명리조트과, 간호과, 사회복지과), C팀(스포츠레저과, 임상병리과, 유아교육과), D팀(방사선과, 치위생과) 으로 송호인들은 선의의 경쟁을 벌였다. 그 결과 1등 C팀(290점), 2등 B팀(190점), 3등 A팀(130점), 4등 D팀(110점)으로 C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18시부터 진행한 체육대회 시상식에서는 1등 30만원, 2등 20만원, 3등 10만원 순으로 각각 상금이 전달되었다.

대동제는 다온 총학생회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준성, 최기현 사회자가 축제를 알렸고,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각종 이벤트와 게임이 진행됐다.

'총학생회를 이겨라' 이벤트,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 커플 신문지 게임, 눈 가리고 자장면 먹여주기, 재학생들의 재치 있는 장기자랑, 보물찾기, 총학생회를 잡아라, 여장 대회, 인기가수 축하 공연, 커플 게임 및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행사가 있었다.

학생들은 각 과별로 야외부스를 설치하고 주점, 미니게임 등을 진행했으며 각과의 특성을 살린 네일아트, 페이스페인팅, 칵테일 바 등 모든 학우가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자리를 만들었다.

이번 대동제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날에 개최된 초대가수 공연이었으며 가수 비와이, 브로맨스, 홍진영 등의 노래와 춤은 축제의 열기를 더욱더 뜨겁게 만들었다.

학교 측에서는 대동제를 위해서 21:00까지 통학버스를 연장 운행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고, 사전조사를 통해 1일 기숙사 사용을 원하는 학생들을 지원했다.

이날 총학생회 관계자는 "걱정과는 달리 재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최고의 축제가 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라며 "내년에는 보다 알찬 이벤트와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대동제에서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한가람, 김웅지, 김진, 이현지 기자

















# 횡성로타리클럽·횡성빛고을로타리클럽·섬강라이온스클럽 산학협력 체결

**- 우리대학교, 상호 교류 협력 강화하여 횡성군민의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하다 -**




우리대학교는 지난 4월 4일 14시 송호관 세미나실에서 횡성로타리클럽, 횡성빛고을로타리클럽, 섬강라이온스클럽과 산학협력을 체결했다.

이날 이기평 총장, 횡성로타리클럽 김선덕 회장, 횡성빛고을로타리클럽 김민숙 회장, 섬강라이온스클럽 이윤선 회장 등 내빈 10여 명이 참석했다.

본 협약식은 횡성군민의 지위 향상을 위한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구축 및 체계 확립과 상호 교류협력을 통한 양측의 발전 및 공동관심사에 대한 성공적인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횡성군민의 지위 향상을 위한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구축 및 체계 확립 ▲지역 네트워크 구성으로 횡성군민 평생직업교육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 ▲평생직업교육 비학위과정의 개발·운영·참여 등 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산업 활성화 도모 ▲평생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 개발 및 지역협력사업 정보 교류 ▲학술정보 및 간행물 상호교환 ▲기타 양 기관 협의 사항 등이다.

이날 이기평 총장은 "지역 내 봉사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클럽과 우리대학이 함께 협력하여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에 봉사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전민지 기자

## 우리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과, 국제요리대회서 전원 수상!




우리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과는 지난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양재동 AT Center 제2전시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제요리(제과) 경연대회'에 참가해 코스요리 라이브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날 학년별이 아닌 1, 2학년 혼합팀으로 출전한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으며, 전원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본 대회에서 수상한 학생은 금상(호텔외식조리과 B팀 2학년 김진 외 3명), (호텔외식조리과 C팀 2학년 김동주 외 3명), (호텔외식조리과 D팀 1학년 공성필 외 3명), 은상(호텔외식조리과 A팀 2학년 원광식 외 3명), (호텔외식조리과 E팀 1학년 김지현 외 3명),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최우수상(호텔외식조리과 D팀 1학년 공성필 외 3명)으로 우리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과의 끈끈한 팀워크와 요리 실력을 입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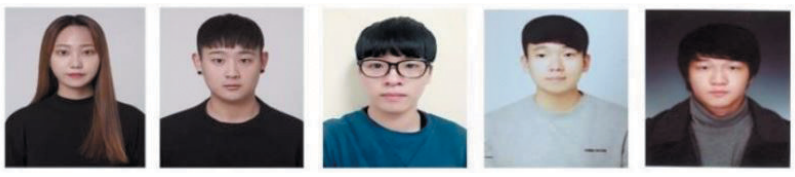
대회를 마친 후 이준모(호텔외식조리과 2) 학생은 "전날 축제준비 때문에 쉬지도 못했는데 대회준비까지 강행하면서 많이 힘들었다. 하지만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되니 지친 몸과 마음이 위로되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또한, 손석범(호텔외식조리과 2) 학생은 "과대라서 대회연습을 많이 못 했는데 팀원들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전하고 싶고 금상을 수상하기까지 고생한 팀원들에게 고맙다"며 "그간 대회준비를 같이 해주신 교수님과 일정관리를 해주신 조교님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호텔외식조리과 학과장 김나영 교수는 "매년 대회 규모에 상관없이 학생들이 경험을 쌓고 성장할 기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산업체 현장 및 대회 환경과 유사한 실습환경 구축으로 실력 향상과 현장 적응력 함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진 기자

##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일반면허 50% 합격!

**- 전국 평균 합격률 15.4%, 우리대학교 방사선과 50% 합격 쾌거를 이뤄내다 -**



지난 4월 2일 충남대학교(대전 유성구)에서 실시한 제2017-1회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일반면허 (RI 면허)에 우리대학교 방사선과 학생 10명이 응시해 5명이 합격했다. 우리대학교 방사선과는 2010년도 학과 설치 이후 최초로 재학생 합격자를 배출했으며, 재학생 4명(정진솔, 김윤건, 신민철, 정지원)과 졸업생 1명(13.김석진)이 합격했다.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주관하는 방사성동위원소 일반면허 시험은 방사성동위원소의 취급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을 취득하는 시험이다.

이번 시험에는 총 4,167명이 접수하여 2,923명이 응시(70.1%)했으며, 충남대학교 내 5개 건물의 78개 시험실에서 약 3시간 동안 진행됐다. 합격자는 총 645명으로 전국 평균 합격률은 15.4%에 그쳤으나 우리대학교 방사선과는 50%로 전국 평균 대비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

이에 김낙상 방사선과 학과장은 "2010년 방사선과가 개설된 이래 재학생이 RI 면허에 합격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RI 면허 시험 준비생들을 위해 역량강화, 심화특강, 모의고사 등 담당 교수의 노력과 탁월한 지도력이 큰 효과를 발휘했다"고 말했다.

합격한 정지원(방사선과 15) 학생은 "처음에는 교수님들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바쁘게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점차 스스로 시간을 조율하게 되었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갔습니다. 새벽까지 공부하면서도 스스로 부족하다는 불안한 생각이 계속 공부를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교수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전민지, 조준연 기자

## NH농협은행 횡성군지부, 학생들을 위한 발전기금 300만원 기탁하다




지난 4월 27일 오후 3시, 우리대학교 총장실에서 NH농협은행 횡성군지부(박종태 지부장) 발전기금 300만 원의 기탁식을 거행했다.

기탁식에는 이기평 총장, 김익홍 사무처장, NH농협은행 횡성군지부 박종태 지부장, 원락희 부지부장, 장은경 계장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NH농협은행 횡성군지부 박종태 지부장은 "기탁금이 송호대학교 발전과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평 총장은 "NH농협은행 횡성군지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학생들을 위하는 따뜻한 마음을 우리 사회의 한 분야를 이끌어갈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으로 보답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NH농협은행 횡성군지부는 2016년도에도 우리대학교에 300만 원을 기탁한 바 있다.

전민지 기자

## 2017 횡성한우 특화산업 인력육성사업 개강식



지난 4월 18일 우리대학교 송호관 1층 평생직업교육대학 세미나실에서 '2017 횡성한우 특화산업 인력육성사업 개강식'을 가졌다.

이날 개강식에는 교육생 45명과 지도교수 외 이기평 총장, 김상호 횡성 부군수, 이창열 원주 고용노동부 지청장 등 6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횡성한우 특화산업 인력육성 교육은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300여 시간 동안 진행되며, 교육내용은 횡성한우를 부위별로 용도에 맞춰 분할·정형·발골 작업을 수행하는 식육처리 기능과 횡성한우 특화메뉴 개발, 횡성한우 부산물 가공 등이다.

이기평 총장은 "본 교육을 통해 수료생 여러분 한분 한분이 명품 횡성한우를 이용한 조리기능 전문 인력의 역할을 다하여 지역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여러분들께서 바라던 목표들이 충실히 달성되고, 다양한 취·창업 성과로 발전되기를 마음속 깊이 기원 한다"고 전했다.

전민지 기자

## 스포츠레저과, 제 1회 '홈커밍데이' 행사 개최



지난 4월 29일 (토) 우리대학교 스포츠레저과는 창조관 1층 종합강의실에서 송호스포츠의 만남 '홈커밍데이' (HOME COMING DAY)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스포츠레저과 동문과 가족, 재학생, 교수 및 대학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재학생과 졸업생 간의 멘토-멘티 프로그램 실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 학과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 제시 등을 목적으로 한다.

홈커밍데이 행사는 스포츠레저과 박영남 학과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졸업생의 취업 현황 및 준비 과정, 현장 경험 에피소드 공유, 친목 도모 레크레이션 등으로 진행됐다.

박영남 학과장은 "오늘 행사는 현재 대학교육과 현장 영역 간 거리를 좁히고자 하는 사회적·정책적 요구 속에서 현장교육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학과 선·후배들의 교류의 장을 통해 소통하는 것이야말로 학과 교육 목표를 이루는 첫걸음이라는 취지로 행사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효빈(스포츠레저과 1학년)학생은 "이번 행사는 졸업하신 많은 선배님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어서 과에 대한 소속감과 애정을 더욱 가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졸업 후에 꾸준한 만남을 통해 교수님들과 동기, 선후배 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전민지, 이현지 기자

## 방사선과, 원주 세브란스 기독 병원 견학




지난 4월 14일, 우리 대학교 방사선과 1학년 28명의 학생 전원은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에 소재한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현장 견학을 다녀왔다.

본 견학은 예비 방사선사로서의 기본 소양을 함양하고 임상 분야의 업무에 대한 이해와 진로 방향 설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견학 일정은 병원 연혁 설명식에 이어 영상의학과 전성수 팀장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주제로 한 특강, 원내 영상의학과의 촬영실별 각종 최첨단 방사선 영상 장비 관찰 및 설명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참가한 방사선과 1학년 함승민 학생은 "전공 서적과 이론으로 접하던 방사선 장비의 실물을 현장에서 직접 관찰하고 관련 설명까지 들을 수 있어서 좋았으며 무엇보다 생생한 현장을 경험하게 되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본교와 산학협력을 맺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은 매년 방사선과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첨단 시설을 갖춘 병원 견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전민지, 이상훈 기자

## 관광(대명)리조트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가해…



우리대학교 관광(대명)리조트과 2학년 학생 전원은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10일까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진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본 프로그램은 우리대학교 취·창업지원센터와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리본(원주)이 연계하여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통합적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업지원프로그램은 개별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서 1단계 '진단 및 경로 설정' - 2단계 '취업상담 및 직업능력 향상' - 3단계 '집중취업알선' 순으로 이루어진다.

프로그램 참여 시 취업상담 참여 수당(최대 20만원)과 훈련 참여 수당이 지급되며, 사업설명 및 기초 상담, 직업심리검사(직업 선호도 검사 S형-L형). 직업정보 탐색 안내,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IAP) 수립, 취업 정보 제공,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면접 지도 등이 진행된다.

이날 희망리본 원주지역 본부 조소현 상담사는 "저희 상담사들은 학생들의 친구 같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 하며 학생들의 취업 고민과 진로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송호대학교 재학생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고,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도 꾸준히 연락하며 좋은 관계가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전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관광(대명)리조트과 2학년 김재연 학생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직업 선호도 검사를 통해 내 성격과 적성에 맞는 직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대명리조트에 취업했을 때 어떻게 임해야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한가람, 전민지 기자

## 제 4기 '쏭투게더' 선발하다

지난 3월 21일, 우리대학교에서 '쏭투게더(Song Together)' 제4기를 선발했다.

쏭투게더는 '송호대학교와 함께 꿈을 노래하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교내 문화를 만들기 위한 기획실 산하 학생 홍보대사 조직이다.

쏭투게더로 활동하는 학생은 본교 재학생 1학년으로 학과별 1명씩 총 11명이다. 선발일로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총장명의 위촉장, 활동확인서, 근로장학생 장학금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주요 활동은 우리대학교 홍보용 매체 모델, 미디어 인터뷰 활동, 교내·외 오프라인 행사 참석 및 온라인 홍보 활동 등이다.

쏭투게더로 선발된 전수연(뷰티케어과 1) 학생은 "대학 홍보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앞으로 쏭투게더 활동에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자세로 임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전민지 기자

## 캠퍼스 안의 작은 병원, 건강보건실을 소개합니다!

**Q.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송호대학교 건강보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이희석입니다. 대학병원에서 3년간 근무했고, 우리대학교로 이직 후 2016년도부터 건강보건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Q. 하루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주로 어떤 이유로 건강보건실을 방문하나요?**

- 보통 하루에 약 20~30여 명의 학생이 건강보건실을 찾습니다. 건강보건실을 찾는 학생들은 대부분 경증의 질병이나 외상 등의 이유로 방문합니다. 최근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호흡기 질환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기침, 인후통, 발열 등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두드러지게 늘어났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날에는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본인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건강보건실에서는 일회용 마스크를 구비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학생들은 언제든 방문하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Q. 건강보건실 이용 방법이 궁금합니다.**

- 건강보건실은 도약관 1층 '그라찌에' 카페 맞은편에 있습니다. 송호대학교 재학생과 교직원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12시 30분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입니다. 응급환자의 경우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건강보건실에 구비된 약의 종류와 이용 가능한 처치는 어떻게 되나요?**

-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등 일상에서 쉽게 발병되는 질환에 대한 대부분 약품을 갖추고 있습니다. 약물 이외에도 외상 처치를 위한 멸균소독용품과 염좌나 골절 등 근골격의 손상을 처치하기 위한 용품들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정과 휴식이 필요한 환자가 편하게 쉴 수 있는 침상이 마련되어 있어 언제든지 이용 가능합니다.

**Q. 일반 진료 외에 다른 사업도 시행하고 있나요?**

- 건강보건실에서는 매년 금연, 금주 등 자가 건강관리를 위한 캠페인을 개최합니다. 또한 금연과 금주에 대한 상담도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건교육, 의료지원반, 유관기관연계 등 재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 건강보건실을 운영하면서 보람되는 일 또는 힘들었던 일이 있다면요?**

- 간호사 체질이라서 업무에 어려움이나 힘들다고 느낀 적은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보람은 학생들이 늘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우리 학생들이 항상 건강하게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건강보건실을 찾는 학생들에게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듭니다. 우리대학교 학생 여러분들이 항상 자신의 건강관리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민지 기자

# 송호의 단합을 보여주다!
#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

지난 3월 2일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우리대학교 각 학과에서는 친목 도모를 위해서 대학 행사의 대명사인 MT를 다녀왔다.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하나가 되고 학생들이 직접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여 협력과 친화력을 도모하는 즐거운 MT 사진을 소개한다.


횡성 섬가람 펜션 - 방사선과



둔내 클럽디아뜨 펜션 - 유아교육과


양평 애화몽 펜션 - 치위생과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 호텔외식조리과


평창 휘닉스파크 - 대명리조트과



평창 휘닉스파크 - 보건행정과



홍천 대명비발디파크 - 스포츠레저과



홍천 대명비발디파크 - 임상병리과



횡성 휴선 펜션 - 사회복지과

김 진 기자

# 우리대학교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벌써 1학기의 종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대학교에 많은 동아리가 있으나 아직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서 송호신문사 기자가 나서서 취재했습니다. 좀 더 즐겁고 알찬 대학생활을 원하는 학생들은 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해보기를 바랍니다.

## # CCC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CCC(한국 대학생 선교회)는 종교 동아리로서 우리대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전국 대학생들이 활동하는 동아리입니다. 평소 대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학생들의 고민 상담 등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활동과 더불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방학 중에는 여름 수련회 및 농촌봉사활동, 해외 단기 선교 활동 등이 있습니다. 저희는 매주 화요일 3시, 금요일 2시에 교내 교회에서 정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 # RCY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RCY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봉사동아리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사랑과 봉사의 적십자 정신을 배우고 실천하여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합니다. 또한, 국내·외 단원들과의 친선활동을 통해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자신과 친구, 가족, 이웃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우리 주변의 고통 받는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 사회복지 시설 방문, 장애인 돕기, 농어촌과 도시 봉사활동, 어려운 이웃돕기 활동뿐만 아니라 재난을 당한 세계 각국 청소년에게 우정의 선물상자를 만들어 보내고 장학기금 모금을 위한 사랑의 쌀 한 줌 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 # ZEST(제스트)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ZEST는 댄스 동아리입니다. 춤을 사랑하는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으며, 춤을 통해서 교우 간의 친목을 다질 뿐만 아니라 교내·외의 축제나 행사, 대회 등을 참가하여 실력을 겨루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도모하는 동아리입니다. 저희는 매주 월요일 교내 창조관 1층 동작실에서 정규 연습을 합니다. 저희 동아리를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현재 영상 촬영 및 편집 담당 부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해주세요.

## # 로타랙트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로타랙트는 횡성군 로타리 클럽과 연계된 동아리로 송호대학교 개교 이래 가장 오래된 동아리입니다. 로타리 클럽과 횡성군에서 도움이 필요한 곳을 알려주면 저희 동아리가 직접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에서 진행되는 봉사를 하면서 로타랙트 동아리 부원으로서 소속감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으며 봉사증서도 받을 수 있어 취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로타랙트는 국제 로타리의 구성원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김 진 기자

학과 탐방

#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회복지과

현대사회의 각종 사회 문제와 인간의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고 사회정의가 실현된 복지사회를 이룩하는데 기여하는 통합적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회복지과를 소개합니다.











**1. 사회복지과는 어떤 과인가요?**

우리대학교 사회복지과는 '세계를 선도하는' '능력 중심 평생 직업교육' '명품대학'이라는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의 비전과 연계된 휴먼 케어 한류화를 선도하는 학과이며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 등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전문 인재(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요양보호사)양성에 교육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사회정의, 창의적 노력, 사랑의 봉사 정신을 함양함과 동시에 사회복지 관련 지식과 실천기술, 그리고 바람직한 가치와 태도를 학습함으로써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균형 잡힌 전문 사회복지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과입니다.

**2. 우리대학교 사회복지과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은 무엇인가요?**

우리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육이 야간에 진행되는 특성으로 학생 대부분이 직장인으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학교에 와서 학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전공심화과정과 산업체 위탁과정도 있어 복지 분야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3.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행사가 있나요?**

사회복지과는 야간이라는 특성 때문에 학교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나 참가할 수 있는 교내·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특히 동아리활동을 통하여 다문화축제, 장애인의 날 축제, 평생학습의 날, 어린이날 등의 지역사회에서 열리는 행사 및 복지 기관에서 봉사를 하며 사회복지인으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4. 졸업 후 취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에서는 현재 지역사회의 약 140여 개의 복지기관과 산학협력을 체결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학생들은 재학 중 다양한 사회복지 기관 견학 및 기관장, 선후배 멘토 활동을 통해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과 자세 등을 배우게 됩니다.

졸업 학기 직전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자질과 능력을 배우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자신의 전공을 살려 취업의 관문을 헤쳐 나가게 되는데 졸업한 선배들이 취업한 기관에서 취업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사회복지과 학생들은 졸업 후에 청소년 및 학교, 노인 및 장애인, 의료 및 정신보건, 지역사회 복지 및 공무원, 자원봉사 및 NGO, 여성 및 가족복지 분야로 다양하게 뻗어가는 중입니다. 졸업 후에는 일반적으로는 사회복지사로서 활동을 하게 되며, 교수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복지 기관 창업을 하는 등 지역사회 복지에 다방면으로 힘쓰게 됩니다.

**5. 사회복지과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학생 여러분! 일하랴, 살림하랴, 공부하랴 많이 힘드시죠. 앞길은 막막하고 미래는 불안하고… 하지만 모두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꿈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대학교 사회복지과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후에 사회에서 멋지고 훌륭한 사회복지사의 모습을 꿈꾸며 도전하는 사회복지과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한가람, 이상훈 기자

# 우리대학교에 새로 오신 조교님



보건행정과
**황 혜 지 조교님**



사회복지과
**이 슬 비 조교님**



호텔외식조리과
**김 민 지 조교님**

**1.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3월에 송호대학교 보건행정과 조교를 맡게 된 황혜지라고 합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서울에 소재한 학교를 나왔기에 횡성에 아는 사람이 없지만 이번에 많은 분들과 함께 일하게 돼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 송호대학교에 오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일자리를 찾다가 우연한 기회로 보건행정과 행정 조교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횡성에 아는 사람은 없지만 이번에 많은 분들과 함께 1년 동안 좋은 추억을 만들고, 제 나름대로 경험을 쌓아 올리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에 송호대학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3. 보건행정과 학생들에 대한 인상이 궁금합니다.**
밝고 착한 친구들이에요. 간혹 말을 직설적으로 하는 학생들도 있고, 가끔 제 말을 너무 안 들어주는 학생들도 있어서 속상할 때가 있으나 그래도 마음은 모두 다 착한 학생들인 것 같아요.

**4. 조교님이 하는 일이 궁금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교수님들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학과에서 하는 행사나 외부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참여하고, 학생들의 안전에 힘써야 하며, 보건행정과의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숙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대학 생활에 좀 더 잘 적응하도록 하기 위한 상담, 연애상담, 교우관계에 대한 상담 등을 하고 있답니다.

**5. 평소 가지고 있는 소신이 무엇입니까?**
저의 소신은 정직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도록 산다면 타인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짓말만큼은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자 늘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6. 앞으로 조교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우선 학교 업무에 좀 더 적응을 하고 싶어요. 사람 이름을 잘 외우지 못하는 편이라서 입사하고 지금까지는 사진도 보고 실물도 보면서 이름과 특징들을 많이 외우려고 노력했었어요. 이제는 학교업무에 숙달되어서 우리 보건행정과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7. 보건행정과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착하고 밝은 모습이 참 보기 좋은 보건행정과 학생들아! 내가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잘 지냈으면 좋겠고, 너희들이 학교생활 좀 더 열심히 해서 사회에 나갈 때 선택의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 모두 자신의 꿈을 이뤘으면 한다!

**1.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과 조교 이슬비입니다.
2012년에 강원도 횡성에 이사를 와서 14학번으로 사회복지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사회복지과 전공심화과정 2학년에 다니면서 조교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2. 사회복지과 조교님이 되신 계기가 있나요?**
저의 전공은 원래 유아교육이었습니다. 전공 관련 일을 하다가 횡성에 이사 오면서 자연스럽게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우연히 사회복지에 관심이 생겨서 아동·청소년 복지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에 가까운 우리대학교 사회복지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교수님의 권유를 받아서 행정업무도 배우고 경력도 쌓고자 조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3. 사회복지과 학생들에 대한 인상이 궁금합니다.**
저희 과 특성상 젊은 학생들보다는 만학도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가가기 어렵고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 있었지만, 지내다 보니 가족 같은 분위기로 많이 챙겨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친근하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동기끼리 우리 과는 사회복지를 할 만한 사람들만 모였다고 농담을 하곤 했는데 그만큼 선한 사람들이고 좋은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4. 사회복지과 조교님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행정 업무 지원 및 학생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학과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교수님과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려운 부분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 평소 가지고 있는 소신이 있나요?**
저는 "나는 천천히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뒤로는 가지 않습니다."라는 링컨의 명언을 좋아합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남들보다 뒤처진 저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았지만 이 글을 보며 위로를 받고 긍정적인 사고와 도전하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앞으로의 삶에도 실패가 있겠지만, 그 실패를 발판삼아 다시 일어서고, 남들보단 늦을 수도 있지만, 꾸준히 노력하고 발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6. 조교님의 대학 생활은 어땠는지 알려주세요.**
나름대로 재미있고도 힘든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술병에 걸릴 정도로 많이 놀아보고, 코피 터지도록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연애도 해보고, 말 그대로 지금 친구들이 하는 대학 생활을 했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웃긴 일도 쑥스러운 일도 많았던 시절이었지만 그런 시절이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해요!

**7. 앞으로 조교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졸업 후 전문적인 학교복지사가 되기 위해 관련 분야 공부를 이수하여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 아동·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학교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8. 사회복지과 학생들에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멋지고 예쁜 사회복지과 학생들에게 항상 고맙고 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셔서 매우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전에는 일하고 야간에 학교에 나와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서 힘이 되고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사회복지의 일이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우리 모두 사회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이도 어리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서로 힘이 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 파이팅!!

**9. 마지막으로 송호대학교 학생들에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송호대 학생 여러분! 가장 예쁘고 멋지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20대를 많이 즐기세요! 코피 터지게 공부도 해보고, 알콩달콩 연애도 해보고, 친구들이랑 싸워도 보고, 술도 많이 마셔보고, 무슨 일이든 다 해보세요! 지금은 내 현실이 힘들고 막막해도 나중에 생각해 보면 다 추억이고 내 소중한 경험이랍니다! 어디서든 당당하고 멋진 학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1. 간단하게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송호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과 15학번으로 졸업을 하고, 호텔외식조리과 조교로 입사하게 된 김민지입니다.

**2. 우리대학교에 오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존경하는 호텔외식조리과 김나영 교수님께서 조교 일을 제안해주셔서 오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조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 일을 하게 되면 칼 잡는 일이 줄어들어 나중에 조리 일을 하게 될 때 힘들어질까봐 고민이 되었어요. 또 처음 하는 행정 일이라 걱정도 많이 되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조리 분야도 행정 분야와 관련이 있으므로 미리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조교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3. 호텔외식조리과 학생들에 대한 인상이 궁금한데요.**
호텔외식조리과 학생들은 이미지가 강해 보이지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이 크고 조리를 할 때, 대회 연습을 할 때는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17학번 친구들을 처음 봤을 때는 말도 잘 안 듣고 속만 긁을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면 애교도 많아요. 때로는 고민을 털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저를 편하게 생각해준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참 고마웠어요. 개성이 강한 친구들도 많고 애교도 많은 호텔외식조리과 학생들을 보면 새내기의 젊음이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 호텔외식조리과 조교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이번 여름방학에 2학년 학생들이 조리현장실습을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실습 관련 지원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외에 기본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조교의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아직 업무가 손에 익지 않아서 많이 힘들지만, 얼른 적응해서 학생들과 더욱더 소통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조교가 되고 싶습니다.

**5. 조교님의 대학 생활이 궁금합니다.**
저는 학생 때는 등록금을 마련해보겠다고 과대도 하고, 총학생회도 했습니다. 대학교 다니면서 부모님께 용돈을 받지 않고 평일에는 근로학생으로 일하고, 주말에는 풀타임으로 아르바이트하면서 스스로 용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대학 생활을 즐길 틈이 없었어요. 다시 학생 시절로 돌아간다면 쉬엄쉬엄 일하고 대학 생활을 즐기고 싶어요.

**6. 앞으로 조교님의 계획이 있다면요?**
앞으로 자격증 공부를 해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해두려고 합니다. 조리 관련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내년에는 다른 학교로 편입할 생각이에요.

**7. 마지막으로 호텔외식조리과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졸업하자마자 조교로 들어와서 누군가의 선배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후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불편할 수 있겠지만 서로 양보하고 이해해주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최대한 학생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특히 고민이 있는 학생은 언제든지 찾아와서 함께 소통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호텔외식조리과 조교로서, 선배로서, 후배로서 응원 할게요~ 호텔외식조리과 파이팅!

전민지, 김은경, 조준연, 김웅지 기자

학생발언대

# 제18회 대동제, 현장 속에서 담은 학생들의 이야기

우리대학교 캠퍼스에도 축제 시즌이 찾아왔다. 5월 17일~18일 이틀간 열린 제18회 대동제! 신문사 기자들은 학생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고자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현장을 뛰어다니며 취재에 나섰다. 우리대학교 교직원, 학생, 횡성 군민 등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어우러진 대동제에서 학생들이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자.

### 관광(대명)리조트과 1학년 김 일 복

제가 대학교에 와서 처음 즐겨보는 축제인데 걱정했던 주점들도 완벽하진 않지만 나름 성공적이었고 학생회에서 준비했던 무대들을 재미있고 즐겁게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타 학과 학생들과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매우 보람 있고 뜻 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 방사선과 1학년 강 민 조

대동제를 통해서 여러 학생과 교류할 수 있어서 무척이나 즐거웠습니다. 다만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웠는데요. 축제 기간 동안 조정해 주신 기숙사 개방 시간에 맞춰서 축제 시간도 좀 더 길어진다면 좋겠습니다.

### 관광(대명)리조트과 1학년 김 민 지

첫 체육대회이자 첫 축제였고, 학생회에서 여러 다양한 활동이나 체험을 많이 준비했다고 하여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가 컸습니다. 체육대회나 여러 가지의 게임 종목에서 아쉬웠던 점이 다소 있었으나 축제 때는 열심히 홍보하고 요리도 같이하면서 선후배 간에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고, 밤에는 클럽파티와 함께 비와이. 홍진영, 브로맨스 초청 가수 공연을 관람하면서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릴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 임상병리과 1학년 장 한 빈

고교 졸업 후 처음 맞이하는 대학 내 행사들은 설렘과 즐거움의 연속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들고 판매하는 주점, 그리고 무대 위에 올라가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다만 바람이 있다면, 체육 대회에 좀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축제에서 즐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제공되면 좋겠습니다. 또 주변 지역에 홍보가 더 잘 되어서 외부에서도 많은 분이 같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송호대만의 축제가 아닌 지역사회의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행정과 3학년 김 규 림

저는 이번 대동제에 스태프로 참가하여 축제를 지켜보면서 학생들이 행사 동안 술을 먹으면서도 상호 간의 예절을 지키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작년보다 행사 프로그램의 구성도 다양해지고,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아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구역 외에서 빈번한 흡연이 이루어져서 안전문제와 더불어 바닥에 여기저기 떨어진 담배꽁초로 인해 학교가 지저분해지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학을 깨끗이 아끼고 사랑하는 송호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횡성 '강원도민체육대회' 성황리에 개최










제52회 강원도민 체육대회가 지난 5월 15일 횡성종합운동장에서 개막했다.

이번 도민체전은 '도약하는 횡성에서 하나 되는 강원의 힘' '도약하는 횡성에서 함께 뛰는 도민체전'을 구호와 표어로 지정하여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횡성종합운동장 외 종목별 경기장에서 열렸다.

개회식은 선수단 입장, 국민의례, 한규호 횡성군수의 환영사,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대회사, 김동일 강원도 의장과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의 축사, 대회기 게양, 선수단 및 심판 대표의 선서, 성화 점화로 이어졌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강원도민체육대회는 5일간 강원 횡성군 일원에서 육상, 농구, 축구 등 20여 개 종목 경기에 대한 시·군 대항전으로 펼쳐졌다.

대회를 준비한 횡성군은 강원도민체육대회를 16년 만에 지역에서 개최하는 만큼 강원도민체육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만반의 준비를 했다.

39개의 경기종목을 도내 18개 시·군이 펼친 경기 결과 1부는 춘천시, 2부는 대회 주최 도시인 횡성군이 나란히 우승을 차지했다.

부대 행사는 '맛있는 휴식 횡성', '강원도민의 부엌 횡성', '친환경 기업도시 수도권 횡성', '강원 체육의 메카 횡성', '뻔뻔(Fun Fun)한 횡성'이라는 각 테마를 가지고 진행됐다.

이날 또 다른 행사로 강원도민체육대회 환영 만찬 행사가 체육관에서 이루어졌다.

만찬 행사는 한규호 횡성군수가 주체하였고 최문순 강원도지사, 횡성지역 국회의원 염동렬 위원, 대한 체육회 부회장 정몽규, 강원도의회 김동일 의장 외 296명의 귀빈이 참석하였다.

환영 만찬에서는 횡성 대표 먹거리로 가득 채운 상차림이 메뉴로 제공돼 큰 관심을 받았다. 횡성전통음식연구회가 선보인 이번 환영 만찬 상차림은 횡성한우와 횡성더덕 등을 재료로 한 우거지탕과 더덕영양밥을 주 메뉴로 하고, 한우 떡갈비와 더덕식혜, 메밀전, 더덕·당귀 잎쌈 등의 요리를 더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제52회 강원도민체육대회를 위해 횡성을 찾은 모든 분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횡성한우와 안흥 찐빵을 먹고 다채로운 특별 공연을 즐기며, 횡성의 자연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 한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한규호 횡성군수는 "횡성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평창 동계올림픽 테스트 이벤트가 6개월간 진행됐다. 이제 올림픽 준비는 끝났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세계에 강원도를 홍보하고 알리는 것이고 많은 분이 참가해 올림픽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평직대 평생직업교육에서 우리대학교 관광(대명)리조트과 이덕원 학과장이 지도하는 바리스타과정을 이수한 '횡성커피연구회' 모임도 제52회 강원도민 체육대회에 봉사하기 위해 참여했다.

한가람, 김은경 기자

